제336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개회식

본회의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6년 6월 11일(목) 오후 2시 개식

제336회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사회 의사과장 윤호근)

(14시 04분 개식)

○의사과장 윤호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36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를 위해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추어 1절을 힘차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최호정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 원고는 전자회의모니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의장 최호정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제11대 서울시의회 마지막 정례회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난 4년을 돌아보면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나 일상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고단한 시민 삶의 버팀목이 되고, 힘겨운 일상의 기댈 언덕이 되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를 되뇌이며 현장을 누볐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시민의 뜻을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그 목소리를 시정과 교육행정에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견제하고, 때로는 협력하며 서울 발전과 시민 행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덕분에 우리 서울은 더욱 따뜻한 도시로,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그리고 세계인이 찾고 사랑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가치 아래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살피고, 서울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오신 오세훈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시민들은 행복했고, 서울이 많이 빛났습니다.

내달 1일이면 제12대 서울시의회와 민선 9기 서울시정이 새롭게 출발합니다. 앞으로 4년, 우리 앞에는 수많은 과제와 변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은 오래된 도시로 노후화의 문제를 안고 있고, 저출생과 고령화 속에 인구구조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서울은 세계가 주목하는 도시로 성

장하고 있으며, 새로운 산업과 인재, 기회가 끊임없이 모여드는 역동적인 도시이기도 합니다. 오래된 서울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재생하면서 새로운 서울의 성장동력을 만들어 가는 일,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서울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할 시대적 책무입니다.

인공지능과 첨단기술의 발전은 산업과 일자리의 지형을 크게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지금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한편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며, 그 변화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에 불안이 되기도 하고 새로운 기회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저는 오세훈 시장과 제12대 서울시의회가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서울의 미래를 지혜롭게 이끌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특정 집단의 이해보다 시민 전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오늘의 칭찬보다 내일의 가치를 선택하면서, 서울이 마주할 위험은 줄이고 서울에 주어진 기회는 키워나가는 시정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 길의 중심에는 언제나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삶을 일구어가는 평범한 시민들이 있어야 합니다.

서울교육에도 말씀드립니다. 시민들은 이번 선거에서 전국의 많은 교육감 후보들이 낸 공약, 즉, 각종 명목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돈을 주겠다는 약속들을 보면서 교육청에 예산이 많다는 것을 다시금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교육청 수입의 원천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가 이대로 운용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서울 학생 수는 올해 80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8년 전보다 20만 명, 4년 전보다 10만 명이 줄었습니다. 지방교육재정에 오는 교부금은 올해 80조 원이 넘을 것입니다. 학생 1인당으로 따지면 10년 새 2배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고통은 여전히 극심합니다.

교육 분야에 계신 분들은 애써 외면하고 있지만, 교육청 곳간은 넘치고 있습니다. 반면, 지방정부는 복지비 지출 증가와 도심 노후화 등으로 형편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에서 지방일반재정으로 재원이 일정 부분 넘어와야 합니다.

우리 서울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하는 데 열린 마음으로 적극 선도해 주십시오. 교육청이 나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양보하고 함께하는 모습을 보일 때 학부모들은 박수를 보낼 것이고 학생들은 배울 것입니다.

교육예산은 보여주기식 사업이나 현금이나 정보화기기 뿌리는 사업이 아니라 아이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학교 현장을 바꾸는 데 우선 쓰여야 합니다. 낡은 교실과 노후 시설을 개선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배우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교육활동 침해로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이 안심하고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권 보호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정근식 교육감과 교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해 함께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서울시의회에 보내주신 성원과 신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 천만번 되뇐 우리의 다짐입니다. 사랑하는 시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고 싶었던 제11대 서울시의회는 마지막까지 책임있는 의정으로 시민께 드린 약속을 지켜내며 아름답게 마침표를 찍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행복이었고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과장 윤호근 이상으로 제336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 14분 폐식)

○출석의원(90인)

강동길 경기문 고광민 곽향기
구미경 김경훈 김규남 김기덕
김길영 김동욱 김영옥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인제
김재진 김종길 김태수 김현기
김형재 김혜영 김혜지 남궁역
남창진 문성호 민병주 박강산
박상혁 박석 박성연 박수빈
박승진 박유진 박중화 박춘선
박칠성 봉양순 서상열 성흠제

소영철 송도호 신동원 신복자
심미경 아이수루 오금란 유만희
유정인 윤기섭 윤영희 윤종복
이경숙 이민석 이민옥 이병도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상훈
이새날 이성배 이숙자 이승미
이승복 이영실 이용균 이원형
이은림 이종환 이효원 이효진
이희원 임규호 임만균 임종국
임춘대 장태용 전병주 정준호
정지웅 최민규 최유희 최재란
최호정 한신 허훈 홍국표
황유정 황철규

○청가의원(7인)

강석주 김영철 김춘곤 박영한
이소라 최기찬 최진혁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시장	오세훈
정무부시장	박찬구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	정상훈
행정2부시장	김성보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이동률
여성가족실장 직무대리	마채숙
교통실장	여장권
경제실장	이수연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주택실장	최진석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복지실장	윤종장
문화본부장	김태희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행정국장	곽종빈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임춘근
서울아리수본부장	주용태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재무국장	박경환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관광체육국장	김명주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도시공간본부장	안대희
서울교통공사 사장	김태균
정원도시국장	김영환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미래공간기획관	김용학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한국영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문영표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황보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	황상하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정근식
부교육감	김천홍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용석
의사과장	윤호근

○속기사

곽유정 정현주(편집)